

종합 광정보통신 회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

21세기 광통신 전문업체 모습 보여줄 계획

커미넷(대표 송태진)은 “최적의 광통신 솔루션 제공사”라는 기치아래 광전송, 광계측 및 광부품 제조 사업과 광통신 SI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광 제품에 관련 국내의 경우, 외산 제품이 지배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커미넷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국내 시장의 공급 및 개발, 제조를 통한 대체, 시스템 설계 등을 통해 21세기의 광통신 전문업체로의 전문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커미넷은 지난 1994년 홍중하이텍으로 설립 이래, 1996년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포상과 함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998년에는 수출 유망기업으로 2000년에는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1997년 연구소를 설립해 다가오는 21세기 종합 정보통신 업체로서 전문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현재 기간통신망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커미넷의 송태진 사장은 “우선적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다수의 광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

로 연구조직과 공사라인이 병행하여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R&D 및 개발, 생산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필요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미넷은 일차적으로 기간통신망 사업체에 대해 ATM-PON, 방화벽 등을 통한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광링크, 광컨버터, 광트랜스폰더, 광스위치 개발에 이어 올해에는 편광제어기, OTDR, EDFA, WDM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OTDR, EDFA는 서울대 박재홍 교수와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WDM은 서울대 박남규 교수, 편광제어기는 명지대 신서용 교수, 광스위치는 KETI에 이한영 박사와 공동개발을 하고 있어 연구와 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본격적인 자체생산을 시작으로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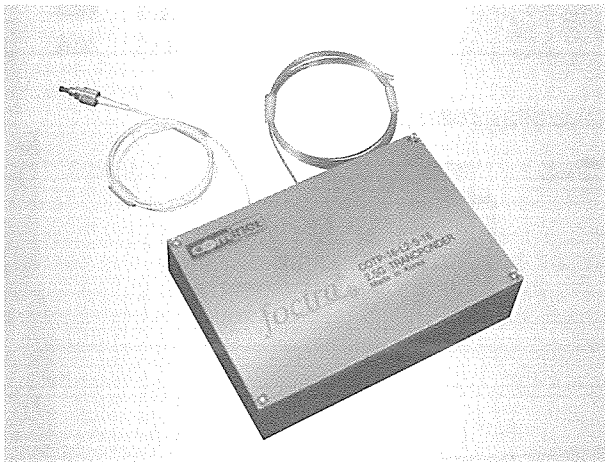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에도 기여

지난해 WDM을 위한 2.5Gbps 광트랜스폰더 개발을 마쳤으며 또 편광제어기에 사용되는 제어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1000배 가까운 속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각 국에 특히 출원중이며 올해 편광제어기와 PMD보상기 개발을 위한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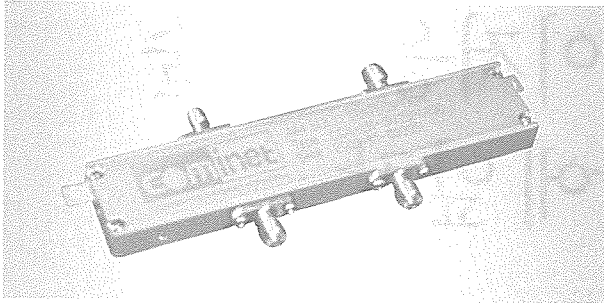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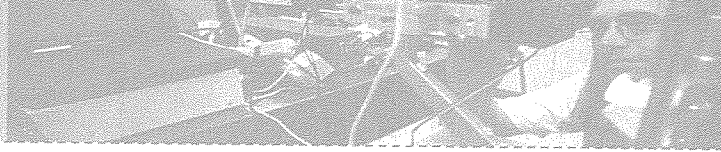
특히 광스위치는 광네트워크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기존제품에 비해 생산기술의 차등화를 두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5억원 상당의 매출액으로 기반을 다진 커미넷은 2001년도 250억원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으며 100억원 가량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 관련 개별 솔루션 시스템에 대한 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송태진 사장은 올해 말까지 코스닥 상장과 함께 외국자본 영입을 통해 연구소의 시설 및 개발 투자를 증대시킬 방침이며, 각 제



▲광 트랜스폰더



▲광스위치

품의 부문별 개발 투자와 마케팅을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30%를 상회하고 있는 커미넷은 올해부터는 링크 및 컨버터, 트랜스폰더등 광전송장비에 관해서 자사에서 개발 생산하는 제품들의 출시를 시작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자회사의 제품출시에 따른 매출증진이 전망되며, 개별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를 낙관적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했다.


9개 개발 사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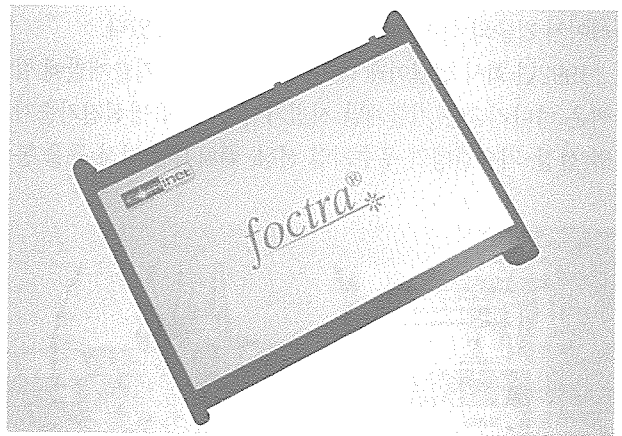
커미넷 연구소장 조병희 전무이사는 “커미넷의 개발방향을 광부품, 광전송장비, 광전송시스템, 광계측기 4개 부문의 균형적 개발, 사업화”라고 이야기하며 광부품에 광증폭기(EDFA), 광스위치 5종, 광전송장치에 광링크 25종, 광컨버터 2종, 광트랜스폰더 2종, 광전송시스템에 WDM, 소용량 FLC, 광계측기에 실시간 자동편광제어기, PMD 보상기, 광선로감시장치(OTDR) 등 총 9개의 개발 사업을 확립하고 서울대 광통신연구실, 한국부품연구원, 나노트로닉스, 명지대 광통신 연구실, 중국 P.A.사와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대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액티브와 함께 안정적인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며 단계별, 프로젝트별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커미넷 2.5Gbps 광트랜스폰더의 적용분야를 살펴보면 DWDM/WWDM, 2.5Gbps SDH/SONET 전송시스템, 10Gbps SDH/SONET 중속신호소스, IMT 2000 기지국 광전송 시스템, IMT2000 기지국 광중계기 시스템, ATM-PON 시스템, 대용량 IP 광네트워크 장비등 많은 적용분야가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02년에 약 7000억원, 해외시장 규모는 약 4조 3000억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으며, 제조원가 절감, 모듈화 설계, 다양한 전송속도, 다양한 규격의 중속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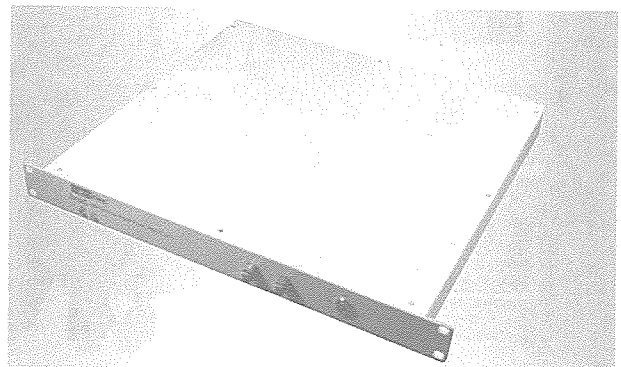
커미넷은 본격적인
광전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21세기 광통신 전문업체로의
전문화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호 지원 등의 장점을 통해 전 세계 시장점유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QuantumBridge사와 ATM-PON 총판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광전송시스템 구축에 출사표를 던진 커미넷은 앞으로 광통신 장비에서, 시스템, 부품, 계측장비 및 광 SI 솔루션을 잇는 종합 광정보통신 회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선로 검사장치(OTDR)



▲광증폭기(EDFA)